

성인 여성의 구두 착용에 관한 조사 연구

A survey for women's dress shoes wearing

최선희, 천종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환경전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ttitude related to the purchasing and wearing dress shoes for Korean adult women. 480 adult women age from 18 to 86 yea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y were recruited in Seoul and Taejeon.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1. The most common dress shoes sizes were 235 and 240.
2. The subjects age under 30 years perceived that the fash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mfort when they purchase dress shoes. The subjects age over 60 years preferred shoes design giving comfort than fashionably designed one.
3. The most frequent complainings with dress shoe design were narrow shoe width, the stiffness of material, and discomfortable sole shape.
4. The letter size designation of dress shoes was not fully recognized by the consumers. The use of letter size designation was extremely low when they purchased shoes that fit their foot.

1. 서론

신발은 발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어 형태가 적절하지 않은 구두를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 발의 형태 변형이 일어난다. 정해진 구두의 형태에 발모양을 맞추는 경향이나 높은 굽 구두 착용에 따른 발과 다리, 허리, 어깨의 통증 유발은 남자보다 성인 여성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앞이 뾰족한 신발을 오래 착용하는 사람들은 앞이 뾰족한 형태의 구두를 착용하는 사람보다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굽는 버선발 기형(무지외반증)의 발생빈도가 높다(동아일보, 1997).

몸의 움직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신체치수에 여유분을 더해주는 의복제작시 여유분의 설정방법과는 달리 구두는 발모양을 좁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목적과 반복착용 후 구두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발둘레 치수보다 구두둘레 치수를 좁게 제작한다. KS의 숙녀화 구두골 치수 규격은 구두골의 둘레 치수가 발둘레 치수보다 9~11mm 더 좁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공업표준협회, 1986).

일상생활 중 오랜 시간 동안 구두를 착용하는 작업환경 및 주거 생활방식의 변화로 착용감이 우수한 구두에 대한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근래에 중년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기능성 구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성인 여성 소비자의 구두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대전 지방에 거주하는 18~86세 성인 여성 480명에 대한 구두착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두 착용 및 구매에 관한 행동은 설문지 조사 방법으로 하였다. 설문지에는 구두 착용 실태, 구두 구매의 실태를 조사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3. 연구결과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18~30세가 20.8%, 31~45세가 23.3%, 46~60세가 16.7%, 61~70세가 16.7%, 71~86세가 22.5%이었다. 본 연구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주부는 31세 이상이 많았으며 학생과 사무직은 30세 이하가 많았다. 생산 판매직은 31세 이상 60세 이하 집단에 많이 분포하였다(표 1).

표 1. 응답자의 연령과 직업 분포

직업 \ 나이	18~30 (n=100)	31~45 (n=112)	46~60 (n=80)	61~70 (n=80)	71~86 (n=108)
주부 (n=337)	6	86	61	77	107
학생 (n=72)	71	1	0	0	0
생산, 판매직 (n=38)	6	16	12	3	1
사무직 (n=33)	17	9	7	0	0

표 2. 구두 구매 및 착용 실태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치수	220~230	124 (25.8)	구두선택 영향요인	착용감	271 (56.5)
	235, 240	238 (49.6)		fashion	192 (40.0)
	245~255	118 (24.6)		경제성	17 (3.5)
구두굽높이	4cm 이하	288 (60.0)	착용시 불편한 부위	불편한 적 없다	114 (23.8)
	5~6cm	147 (30.6)		발가락부위	130 (27.1)
	7cm 이상	45 (9.4)		앞볼부위	115 (24.0)
착용시간	3시간 미만	162 (33.7)		발뒤꿈치부위	61 (12.7)
	3~4시간	135 (28.1)		발등, 복사뼈 및 기타	60 (12.5)
	5시간 이상	183 (38.1)			

구두 치수는 220부터 255까지 분포하였으며 49.6%가 235나 240을 착용하였다. 주로 착용하는 구두굽의 높이는 4cm 이하가 60%이었으며, 구두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점은 착용감과 fashion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두착용시 불편함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6.2%이었으며 불편을 경험한 부위는 발가락과 앞볼 등 구두의 앞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연령 집단에 따른 구두의 구입 및 착용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 연령에 따른 구두착용의 비교

구두착용		연령	18~30	31~45	46~60	61~70	71~86
			(n=100)	(n=112)	(n=80)	(n=80)	(n=108)
치수	220~230		15	33	24	16	36
	235, 240		56	64	40	37	41
	245~255		29	15	16	27	31
구두굽높이	4cm 이하		13	44	48	76	107
	5~6cm		62	53	27	4	1
	7cm 이상		25	15	5	0	0
신발종류	단화		28	44	37	54	74
	하이힐		55	37	34	15	21
	운동화, 기타		17	31	9	11	13
착용시간	3시간 미만		7	47	42	32	34
	3~4시간		11	31	18	27	48
	5시간 이상		82	34	20	21	26
불편한부위	불편한 적 없다.		8	15	13	30	48
	발가락		27	34	22	17	30
	앞볼		20	26	27	22	20
	발등, 복사뼈, 기타		24	13	8	6	9
	발뒤꿈치		21	24	10	5	1

전 연령층에 대하여 중간 치수인 235, 240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다. 230 이하의 작은 치수 분포는 31세 이상 집단부터 증가함을 보이나 61세 이상 집단은 도리어 큰 치수의 분포가 커짐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61세 이상의 노인들이 발길이가 더 길기 때문인지 실제 발길이보다 큰 치수의 구두를 착용하는 경향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큰 치수인 245~255 치수의 구두를 31~60세 집단보다 더 많이 착용함을 보인다.

하루중 구두를 착용하고 활동하는 시간은 연령과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즉 30세 이하는 대부분 5시간 이상 구두를 착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3시간 미만 동안 착용하는 비율은 31세 이상부터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표 1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30세 이하 집단은 학생과 직업여성이 94%로 구성되며 31세 이상 집단은 대부분 주부들로 구성되어 연령에 따른 구두 착용 시간의 차이는 직업적 특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구두 착용시 불편을 경험한 발의 위치는 연령에 따라 달라짐을 보인다. 불편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은 61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45세 이하에서는 발뒤꿈치나 발등, 복사뼈 등 부위의 불편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45세 이하 집단이 선호하는 구두 디자인과 발모양의 관계를 더 분석해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발가락 부위나 앞볼부위는 전 연령층에서 비교적 높은 불편을 나타내어 구두 디자인 및 구두골 제작시 구두 앞부분의 디자인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구두굽 높이 선호는 연령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즉 4cm 이하의 낮은 굽은 61세 이상 집단이 가장 선호하며 30세 이전 집단이 가장 기피하는 굽높이임을 보인다. 반면 5~6cm 굽은 45세 이하의 집단이 가장 선호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인다. 7cm 이상의 굽 높이는 30세 이내의 여성이 특히 선호하나 31~45세 집단에서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인다. 61세 이상의 여성들은 대부분 4cm 이상의 굽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두의 형태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특히 60세 이상이 단화를 선호하며 하이힐은 60세 이하, 특히 30세 이하가 선호하는 디자인이다. 31~45세의 집단은 구두가 아닌 운동화나 슬리퍼 등의 신발착용 비율이 높다. 이는 일반 주부들에게는 구두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신발의 종류가 아니며 외출시 착용하는 신발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 성인 여성들의 구두 디자인 취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매시 중요시하는 점을 조사한 결과 착용감과 구두의 유행 또는 미적인 측면(fashion)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두 구매시 중요시하는 점은 나이, 직업, 주로 착용하는 신발의 종류, 선호하는 구두굽의 높이,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 참조).

표 4. 구두 구매시 중요시하는 점에 따른 집단간 비교

중요시하는 점		착용감 (n=271)	Fashion (n=192)	경제성 (n=17)	중요시하는 점		착용감 (n=271)	Fashion (n=192)	경제성 (n=17)
나이	18~30	24	72	4	신발 종류	단화	159	69	9
	31~45	46	61	5		하이힐	67	90	5
	46~60	49	28	3		운동화, 기타	45	33	3
	61~70	62	16	2	구두굽 높이	4cm 이하	206	70	12
	71~86	90	15	3		5~6cm	59	85	3
직업	전업주부	221	107	9	구입 제품	7cm 이상	6	37	2
	학생	14	56	2		일반신발	107	31	6
	생산, 판매직	23	14	1	국내브랜드	146	143	10	
	사무직	13	15	5	수입제품	14	10	0	
					맞춤제품	4	8	1	

구두 디자인 선택시 중요시하는 점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젊은 층은 fashion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fashion보다는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46~60세 집단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fashion의 중요성이 현저히 낮아짐을 보인다. 구두 선택시 중요시하는 점은 또한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주부와 생산 판매직 여성은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반면 대학생은 fashion을 더 중요시하였으며 사무직 여성은 fashion과 착용감을 절충하여 구두 디자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생활에서 많이 착용하는 신발의 종류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단화종류(굽이 낮은 구두)나 운동화를 선호하는 집단은 착용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하이힐 종류를 선호하는 집단은 fashion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다. 구두 구입시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여성은 낮은 굽(4cm)의 구두를 착용(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구두를 선택할 때 fashion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굽높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나 높은 굽(7cm)을 선호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fashion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구입처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분류한 결과 많은 응답자(62.3%)가 국내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었으며 이들은 착용감과 fashion을 모두 중요시하는 경향이였다. 수입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으나(5.0%) 착용감을 약간 더 중요시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구두를 맞추어 착용하는 경우는 매우 미비하였으며 반드시 더 좋은 착용감을 얻기 위해 구두를 맞추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도 30%이었으며 이들은 fashion보다는 착용감을 더 중요시하는 소비자로 해석된다.

구두치수는 발길이를 나타내는 길이 표시와 볼의 너비 구분을 위한 문자표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두구입시 소비자가 문자 표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천종숙·최선희,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구두치수 문자 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연령 또는 직업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구두의 치수가 문자 표시를 포함하는지 알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1.3%에 불과하였다. 연령별로는 45세 이하 집단의 33.7%가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늘어났다(표 5). 직업별로는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주부들은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구두 구입시 문자 치수 규격을 확인하는 사람의 수는 그보다도 훨씬 적었다. 특히 학생 또는 30세 이하의 젊은 층은 문자 치수 규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구매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두 구매시 30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fashion에 관심이 높다는 표 4의 연구결과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구두 치수 표기 인지와 확인 경향

특성	치수표기 인지	본 적이 있다 (n=102)	'본 적이 있다'중 확인한다 (n=11)
나이	18~30	33 (33.0%)	0
	31~45	37 (33.0%)	6
	46~60	17 (21.3%)	3
	61~70	9 (11.3%)	2
	71~86	6 (5.6%)	0
직업	전업주부	56 (16.6%)	6
	학생	22 (30.6%)	0
	생산, 판매직	14 (36.8%)	3
	사무직	10 (30.3%)	2

표 6. 구두의 기능성 디자인 요소에 대한 불만족 경향

특징	기능성 불만족	구두볼 너비 (n=243)	소재의 유연성 (n=225)	바닥 쿠션 (n=199)	바닥 모양 (n=121)
나이	18~30	44	35	55	44
	31~45	54	49	48	46
	46~60	47	48	35	25
	61~70	42	45	29	5
	71~86	56	48	32	1
직업	전업주부	183	170	126	65
	학생	33	29	38	32
	생산, 판매직	15	17	15	11
	사무직	12	9	20	13

구두의 착용감과 구두의 기능적인 디자인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0.6%가 볼이 좁다고 하였으며, 구두 소재가 너무 딱딱하다는 의견이 46.9%, 구두 바닥의 쿠션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37.3%이고 구두 바닥의 모양이 발바닥의 모양을 적절하게 받쳐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25.2%이었다. 연령에 따른 구두 기능성에 관한 불만족의 경향을 살펴보면 30세 이하는 발바닥 쿠션이 딱딱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볼이 너무 좁다는 것과 소재의 딱딱함은 31세 이후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두 바닥의 모양이 발바닥의 모양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45세 이전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구두 구매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두구매 및 착용실태를 조사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점을 고찰하였고 또한 문자치수 표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1) 전 연령층 235와 240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나 큰 치수는 30세 이전과 60세 이상에서 높은 분포를 보여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규명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령이 낮을수록 1일 착용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착용하나 구두 구매시 착용감보다는 fashion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1일 착용시간이 짧음에도 착용감은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31세 이후 발모양의 변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구두의 착용감과 관련된 구두의 부품 및 기능적인 디자인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0.6%가 발이 좁다고 하였다. 이는 발의 너비에 맞는 구두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소재가 너무 딱딱하다는 의견도 전체의 46.9%로 나타나 편안한 구두의 생산을 위한 구두 소재에 대한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쿠션과 모양에 대해서는 45세 이하 집단의 불만족이 높아 구두 착용시간과의 관계도 더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구두의 길이와 너비를 나타내는 문자치수표기에 대하여 인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1.3%에 불과하였으며 문자치수 표기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문자치수를 확인하는 응답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문자치수체계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위의 결과들은 여성용 구두 치수에 대한 한국공업규격이 발길이별로 4~7가지의 다양한 구두 볼너비 치수의 차이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치수표기 이용에 대한 구두의 제조, 판매, 소비과정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이경태, 발의 건강학, 동아일보, 1997.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공업규격 KS G 3405 구두용 구두골, 1986.

천종숙·최선희, 세장도와 구두 치수에 따른 남성의 발치수 비교, 대한인간공학회지, 16(2), 61~71, 1997.